

파도 위의 등불

무척히 노를 젓는 저 어깨 위로
밤이 내렸다. 바다는 아득함이 있다.

바다는 나를 시험했고
나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는 모른다,
작은 내 칸 뒤에 존엄을 싣고
저는 태양 쪽으로 나아간다.



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

고전 도서명

노인과 바다 <허밍웨이>

작품 설명

작품은 노인과 바다 속 산티아고의 마지막 항해를 그려낸 시화이다. 그림은 어둠이 내리는 수평선 위에서 고요히 배를 젓는 노인의 뒷모습과 배 안에 남겨진 물고기의 뼈만 남아 있는 것은 그의 투쟁을 보여준다.

주로 사용한 질은 남색과 서서히 가라앉는 붉은 태양은 하루의 끝과 인생의 끝자락을 동시에 작품에 들어있는 삶, 존재, 투쟁, 아름다움, 패배와 존엄을 표현했다.

감명받은 구절은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이다. 물고기의 뼈만 남긴 채 돌아오는 노인의 모습은 마치 끝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실패나 패배가 아닌 침묵 속의 고결한 의지가 노인의 진짜 승리라는 것으로 느껴져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이 장면을 고기를 잃은 노인이 바다 위를 홀로 항해하는 장면으로 표현했다.

시는 작은 배 한 척에 존엄을 싣고 지는 태양 쪽으로 나아간다는 마지막 연은 끝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빛을 잃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했다. 노인의 침묵, 고덕, 끈기는 바다에 빛나는 붉은 태양이 마치 등불처럼 바다 위를 계속 떠다니는 것으로 표현했다.